

국 어

1. 파생어로만 묶인 것은?

- ① 잠, 덮개, 굳세다, 덧나다
② 기쁨, 크기, 밀치다, 어린이
③ 멀리, 집칼, 결눈질, 좁히다
④ 웃음, 밝히다, 어둑다, 여닫이
⑤ 많이, 알짜, 돋보기, 철렁거리다

2. <보기>에서 외래어 표기가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마르세이유, 밸런타인데이, 비전, 엠블런스, 엔도르핀,
윈도, 플루트, 코즈모폴리턴, 크리스찬

- ① 3개
② 4개
③ 5개
④ 6개
⑤ 7개

3. 어법에 맞는 문장은?

- ① 올해 경제 성장율은 작년에 비해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② 밤이 되면서 구름양이 점점 많아져서 자정쯤부터 비가 내리겠습니다.
③ 우리나라의 회계년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④ 예전에는 잡지에 펜팔란이 있어서 외국인과도 편지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⑤ 친구가 긴 머리를 싹둑 자르고 나타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4. 어법에 맞는 문장만을 <보기>에서 모두 고르면?

ㄱ. 최근 주식이 하락세로 치닫고 있습니다.
ㄴ. 언제까지 네 뒤치다꺼리를 해야 하니?
ㄷ. 비행기 안에서 담배를 필 수 없습니다.
ㄹ. 청소년에게 걸맞는 스토리가 필요합니다.
ㅁ. 이 꽃에게 물을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 ① ㄴ
② ㄱ, ㄴ
③ ㄴ, ㄷ
④ ㄹ, ㅁ
⑤ ㄷ, ㄹ, ㅁ

5. 밑줄 친 단어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한 분야에 천착(穿鑿)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다.
→ 깊이 파고들어 연구함
② 대학을 졸업한 후에 사이가 더욱 소원(疎遠)해졌다.
→ 지내는 사이가 멀고 서먹서먹해짐
③ 새로운 회사에 입사하니 동료들이 백안시(白眼視)하였다.
→ 친밀하고 반가운 감정으로 대하는 눈매
④ 행복한 삶으로 가는 첩경(捷徑)은 마음가짐에 있다.
→ 멀리 돌지 않고 가깝게 질러 통하는 길
⑤ 직원들의 사기 진작(振作)을 위해 상여금이 지급되었다.
→ 펼쳐 일어나는 상황을 조성함

6.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만주에 갈 때 십여 호 친족이 같이 갔다가 난리 중에 소식도 못 듣고 왔는데, 오랜 시일이 지나서야 친정 사람들 소식도 혹 오가는 편에 들을 수 있었다.

시인 이육사가 북경에서 총살당했다는 소문은 한심통박하였다. 아직 젊은 나이에, 또 그렇게 꿈꾸고 바라던 조국 광복도 보지 못한 채. 그러나 조국 광복의 간절한 소망을 시로 남겼으니 그나마 다행이다. 내 손녀가 읽어 준 육사의 시에는 그가 바라는 손님은 청포를 입고 찾아올 것이라고 하얀 모시수건을 은쟁반에 준비 하라고 했다. 조국 광복을 얼마나 간절하고 애절한 마음으로 기다렸을지를 나는 안다.

해방 이듬해 시월에 이육사의 동생들인 원일, 원조, 원창 삼 형제가 내가 살고 있는 돛질에 들렀다. 묘사(墓祀)를 지내러 안동에 오는 길에 외사촌 누나인 날 보러 왔던 것이다. “우리는 국수 좋아하는데 국수 좀 해 주시려는가?” 그들 중 누가 그랬다.

“국수 좋아하면 더 좋지. 반찬 따로 안 해도 되고.”

대답해 놓고 밀가루 반죽해서 손으로 썰어 얼른 칼국수를 해 주었다. 한 그릇씩 먹고 더 먹는 걸 보고 어찌나 흐뭇했던지 모른다. 집 앞에 있는 정자에서 자고 아침에 일어나더니 벽계(碧溪) 소리 좋다고 찬사가 대단했다.

“원일이 너 거기서 시 하나 지어라.” 했더니, 그렇잖아도 쓰려던 중이라 했다. 바위틈으로 졸졸 흐르는 도랑물이 큰 바위 석곽에 일단 고였다가 다시 떨어지는 그 석천(石泉)의 운치가 보통사람에게도 예사롭진 않았다.

육사 형제는 모두 여섯이다. 원기, 원삼, 원일, 원조, 원창, 원홍이다. 원삼이가 곧 육사인데, 아명은 원록이라고도 했다. 육사는 해방되기 얼마 전에 만주에서 돌아와 서울 들렀다 북경 갔다고 했다. 그 길로 붙잡혀 그 이듬해 사형당했다. 그가 바라던 청포 입은 손님도 맞이하지 못하고 마흔 살 나이에 아깝게 갔다.

원일이하고 남편하고는 동갑이라 집에 오면 늘 항렬 따지고 생일 따지며 서로 자기가 어른이라고 우기기도 했다. 고모(육사 어머니)가 안동으로 시집와 시어머니의 친정 질부가 된 때문에 양쪽으로 친척이라 항렬 따지기가 좀 복잡했다.

- 허은 구술, 『아직도 내 귀엔 서간도 바람소리가』에서 -

- ① 이육사는 서른아홉 살에 체포되었다.
- ② 이육사가 시를 지어 읊었던 추억을 회상하고 있다.
- ③ 이육사의 시에서 ‘청포 입은 손님’은 조국 광복을 의미한다.
- ④ 이육사의 어린 시절 이름은 ‘원록’이었다.
- ⑤ 이육사는 ‘나’의 남편보다 나이가 많았다.

7. 인용 부호 속 문장에 대한 문법적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생은 어떤 사람이든지 만나려 한다.”

이 문장은 ㉠‘만나다’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중의적으로 해석된다. 즉, ㉡‘동생’이 주체가 되는 경우 ‘어떤 사람이든지’는 대상으로서 목적어 역할을 하고, 반대로 ㉢‘어떤 사람이든지’가 주체가 되는 경우 ‘동생’은 서술어의 ‘대상’이 된다. ㉣이 문장에서 ‘어떤’은 부정칭의 의미를 갖는다. 그리고 ㉤‘하다’는 문장의 본동사로 사용되었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

8.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요즘 우리가 먹는 배추가 100여 년 전의 요리책에 나오는 배추와 같다고 누가 단언할 수 있겠는가? 옛 문헌에 나오는 ‘배추’와 오늘날의 배추가 같은 것이라 생각하고 조선시대 배추 김치를 복원할 수 있을까? 만약 비슷하게 복원했더라도 당시 사람들의 생각까지 이 음식에 담을 수 있을까? 음식의 역사를 다루면서 어떤 문헌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는 식으로 단순 나열만 한다면 그것은 역사가 아니다. 당시 사람들이 왜 그러한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었는지를 밝혀야만 그 음식의 역사에 다가갈 수 있다. 음식의 역사는 결코 에피소드 모듬이 아니다. 그 속에는 경제와 정치와 사회가 있다. (중략)

음식의 역사는 거시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면 사소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음식의 역사만큼 거시사와 미시사를 아우르는 것도 없다. 사람은 잘났건 못났건 누구나 먹어야 살고, 먹기 위해 경제 활동은 물론이고 사회활동도 정치활동도 하기 때문이다. 그러니 한 개인이나 사회가 무엇을 어떻게 먹고 살아왔는지를 알면 그 사회의 역사가 보인다.

- ① ‘배추’와 ‘배추김치’는 음식의 역사 기술과 관련된 예시로서 언급되었고, 냉면, 잡채, 빈대떡 등 여러 예시로 확장될 수 있다.
- ② 음식에 관한 문헌학적 고증만으로는 음식의 역사를 설명하기에 부족하므로 정치, 사회, 경제적 맥락을 살피는 과정이 수반되어야 한다.
- ③ 식사라는 개인의 사적인 행위는 그가 속한 사회와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미시적인 차원에 머무르지 않는다.
- ④ 음식의 역사가 에피소드 모듬이 아니라는 점에서 특정 음식이 등장하는 사회적 기반과 경제적 여건 등을 통찰하는 시각이 필요하다.
- ⑤ 음식이라는 극히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차원으로부터 한 개인이 속한 정치, 경제, 사회적 상황을 추론함으로써 거시적 관점이 지니는 추상적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

9.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20세기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영양의 과소비가 일어나면서 고도 비만이 문제가 되었다. 전체적으로 발육 상태가 좋아지고 영양분의 섭취는 필요 이상으로 많아졌다.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 날씬함의 기준은 오히려 살과 뼈가 만나는 수준의 깡마른 체형으로 역주행하였다. 그러다 보니 다이어트에 집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게 되었고, 급기야 지나친 다이어트의 한 극단인 ‘신경성 식욕 부진증’, 즉 ‘거식증’이라는 병이 생기게 되었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10대 전후에서 시작해서 20대에 가장 많이 발견된다. 인구의 4% 정도까지 이 병에 걸렸을 것이라고 추정된다. 흥미롭게도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직접 요리를 해서 다른 사람을 먹이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칼로리 소모를 위해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움직이고 음식물의 칼로리나 영양분에 대한 지식이 해박하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머리가 좋고 자신을 완벽하게 통제하려는 완벽주의적 성향이 강하다.

신경성 식욕 부진증의 근본적인 문제는 ‘나는 뚱뚱하다.’라고 자신의 신체 이미지를 심각하게 왜곡한다는 것이다. 아무리 거울을 보여주며 다른 사람과 비교해도 자신은 아직 뚱뚱하고 만족스럽지 않다고 여긴다. 깡말랐음에도 불구하고 1~2kg만 늘면 무척 불편해하고, 쓸데없는 살덩이가 몸 안에 들어와 있는 것처럼 힘들어한다. 주변에서 볼 때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람으로 보이고, 특히 부모들은 다이어트를 열심히 하는 것뿐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 그러나 10명 중에 1명의 환자는 결국 사망에 이르는 무서운 병이다.

- ①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는 스스로 식욕을 통제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 ②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 걸리면 건강 악화로 생명을 잃을 확률이 4% 정도이다.
- ③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는 영양분의 섭취뿐만 아니라 음식 냄새조차 맡기를 거부한다.
- ④ 신경성 식욕 부진증은 영양분과 칼로리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발병한다.
- ⑤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의 문제는 자신의 신체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

10. (가)~(마)를 논리적 순서에 맞게 나열한 것은?

(가) 앙리 르페브르가 묘사한 현대사회의 모습, 즉 일상이 지배하는 현대사회의 특징은 무엇인가? 현대사회는 덧없음을 사랑하고, 탐욕적이며, 생산적이고, 역동적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끊임없이 공허감을 느끼고, 뭔가 지속적인 것, 영원한 것, 균형 잡힌 것을 갈구하며, 소외감과 무력감을 느끼고 있다. 그것은 과거에 사람들을 견고하게 떠받쳐 주었던 양식(style)이 사라졌기 때문이라고 르페브르는 말한다. 그는 현대성(modernité), 즉 일상성(quotidienneté)의 제일 첫 번째의 특징으로 양식의 부재를 들었다.

(나) 행동방식이라는 측면에서도 일상성은 양식을 완전히 추방해 버렸다. 그리고 이러한 양식에 대한 그리움은 한층 더 진하여, 그것을 되살리려는 노력은 거의 필사적이다. 우리의 추석 명절, 차례 풍습을 생각해 보자. 제기와 의복을 고루 갖춘 명문 선비의 차례의식을 TV화면이 비추는 것은 이 양식에 대한 현대인의 강한 노스탤지어의 표현이다. (중략) 양식은 하찮은 물건, 하찮은 행위, 무의미한 제스처 하나하나에까지 의미를 부여한다. 옛날 사람들은 모든 것을 양식에 의거해서 행동했다. 자신의 행동에 의미를 부여해 줄 양식이 사라진 오늘날, 사람들이 공허감, 권태, 무기력을 느끼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다) 양식이란 무엇인가? 우선 예술분야에서 말해 본다면 한 작품을 만들기 위한 목적으로 어떤 소재와 형태를 다루는 특징의 개인적 또는 집단적 방법을 뜻한다. 이렇게 만들어진 작품은 그와 비슷한 성격의 다른 작품들과 함께 그 시대의 어떤 미학적 전형을 이룬다. 어떤 미술 유파의 양식이라든가, 또는 영국 양식의 가구라든가 하는 말이 그것이다.

(라) 그러나 양식이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그것에 대한 향수는 한층 더 짙어진다. 우리의 일상생활은 양식에 대한 노스탤지어와 그에 대한 약착같은 추구로 특징지어진다고 르페브르는 말한다. 1960년대의 프랑스를 묘사한 이와 같은 현상은 1980년대의 우리나라와 너무도 비슷하다. 19세기의 농민들이 마지못해 가졌을 시골 가구들이 현대 부르주아의 거실을 장식하고 있다고 르페브르가 말했듯이, 지금 서울의 상류층 가정들은 시골 행랑채에나 있었을 투박한 원목가구를 거실의 가장 중심부에 두고 애지중지하고 있다. 골동품이나 옛 양식의 가구에 대한 취미는 단순히 개인적인 여가선용이나 고가품에 대한 취미가 아니라 양식에 대한 노스탤지어, 그리고 일상과의 단절이라는 염원을 담고 있음을 그는 우리에게 깨우쳐 준다.

(마) 또 한편으로는 개인의 행동방식을 뜻하기도 한다. 생활양식이니 행동양식이니 하는 말들이 그것이다. 옛날에는 농부의 옷장에도 양식이 있었으나 지금은 비싼 가구에도 양식이 없다. 형태, 기능, 구조의 어떤 통일성이 양식을 형성하는 것인데, 현대에 와서는 이것들이 분리되거나 마구 뒤섞였다. 대중사회의 부상은 필연적으로 양식의 종말을 고한다. 대중의 수용에 부응하는 대량생산은 기능 이외의 것에 신경을 쓸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 ① (가) - (다) - (라) - (마) - (나)
- ② (가) - (다) - (마) - (라) - (나)
- ③ (다) - (나) - (가) - (라) - (마)
- ④ (다) - (마) - (가) - (라) - (나)
- ⑤ (다) - (마) - (라) - (가) - (나)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문 11. ~ 문 12.]

전통적인 농업에서는 계절적으로 또는 공간적으로 매우 다양한 작물과 품종이 재배되는 윤작(輪作)과 복작(複作)이 주류를 이루었다. 그러나 지난 수십 년에 걸쳐서 점차 한 지역에 대단위로 1년에 한 작물만을 재배하는 단작(單作)이 증대되어 왔다. 단작은 김매기, 파종, 수확 등의 기계화가 용이하고 병충해 방제, 잡초 방제 등 생산 기술의 전문화(專門化)를 쉽게 할 수 있다. 따라서 생산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노동 투입은 줄이고 기술의 투입은 극대화하는 상업적 농업으로 전환되면서 단작이 증가하는 것은 당연한 추세였다. 한편 품종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각 지역에 오랫동안 잘 적응해 온 토착 품종들은 사라지고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수의 품종들이 들판을 차지하게 되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적으로 단지 6개 품종이 옥수수 생산량의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현대 농업의 단작화와 품종의 단순화는 농경지 생태계를 매우 불안정하게 만들었다. 이처럼 생태계의 다양성이 줄어들면 병, 해충, 기후 변화, 환경 변화 등에 취약해지기 때문에 예기치 못한 막대한 피해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한 예는 매우 많이 찾을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벼농사 경험이 그중 하나이다.

우리나라는 1970년대 초에 통일벼를 육성하고 대대적인 보급을 하여 1976년에는 국민의 염원인 쌀의 자급이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1978년에는 우리나라 논 전체의 70% 이상에서 통일계 품종이 재배되었다. 통일계 품종이 처음 보급되었을 때에는 우리나라 논농사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도열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해가 거듭되고 유전적으로 매우 유사한 통일계 품종들이 점차 늘어나자 새로운 도열병 균계가 생겨나 통일계 품종의 저항성이 무너지므로써 1973년에 전국적으로 이삭목도열병이 발생하여 큰 피해를 주었다.

11. 밑글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작물 재배와 관련된 여러 개념을 제시하고 있다.
- ② 구체적인 수치를 통해 내용의 객관성을 확보하고 있다.
- ③ 특정 재배 방식을 비판하며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 ④ 과거와 현대의 재배 방식을 대비하여 설명하고 있다.
- ⑤ 여러 예시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자세히 설명하고 있다.

12. 밑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복작’과 ‘단작’은 서로 대비되는 재배 방식에 해당한다.
- ② 토착 품종보다는 유전적으로 개량된 소수의 품종들이 현대 농업의 주를 이루고 있다.
- ③ 농업의 단작화는 생태계의 불안정화를 촉진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다.
- ④ 우리나라는 1970년대에 통일벼를 육성하여 쌀을 자급할 수 있게 되었다.
- ⑤ 통일계 품종들의 유전적 유사성이 커지면서 도열병에 대한 저항성이 더욱 강화되었다.

13.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한 것은?

자신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철저하게 적응하고 있는 각 종들은 유용한 과학 지식의 방대한 원천을 제공해 주는 진화의 걸작품이다. 오늘날 살아 있는 종들은 수천 년에서 수백만 년 정도 된 것들이다. 그들의 유전자는 수많은 세대를 거치며 역경을 견뎌 왔기 때문에 그 유전자를 운반하는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기 위해 극도로 복잡한 일련의 생화학적 장치들을 숨겨 있게 작동시킨다.

이것이 바로 야생종들이 인류가 살 만한 환경을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 유지를 도와주는 생성물들의 원천이 되는 이유이다. 이러한 산물들 중 적지 않은 부분이 약물에 관한 것들이다. 미국의 약국에서 구할 수 있는 약물의 40% 이상이 원래 식물, 동물, 곰팡이, 미생물 등에서 추출된 것이다. 예를 들어 세계에서 가장 널리 쓰이는 약인 아스피린은 살리실산에서 만들어 낸 것인데, 살리실산은 다시 톱니꼬리조팝나무의 한 종에서 발견된다. 하지만 약으로 쓰일 수 있는 자연 생성물이 들어 있는지 검사된 것은 그 종 중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다.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말라리아제 발견을 서둘러야 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가장 널리 쓰이는 물질들은 질병 유기체가 약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함에 따라 그 효과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예를 들어 보편적인 포도상구균 박테리아는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로서 다시 등장했고 폐렴을 일으키는 미생물은 점점 더 위험해지고 있다. 의학 연구자들은 앞으로 더욱 격렬해질 것이 분명한, 빠르게 진화하는 병원체들과의 군비 경쟁에 불합혀 있다. 21세기 의학의 새로운 무기를 얻기 위해서는 더 광범위한 야생종들로 관심을 돌려야 한다.

-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유기체의 생존과 번식을 돕는 야생종들의 유전자를 연구해야 한다.
- ② 유전자 자체의 진화보다 유전자를 작동시키는 생화학적 장치들이 야생종들의 현존에 더 크게 기여했다.
- ③ 현재 살아남은 종들은 철저하게 환경에 적응한 결과물이므로 인간이 처한 환경 문제와는 무관하다.
- ④ 인간이 질병 유기체에 대한 유전적 저항성을 획득하게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항생물질과 항말라리아제 발견이 시급하다.
- ⑤ 의학 연구자들에게 새로운 무기가 필요한 것은 잠재적으로 치명적인 병원체들이 새롭게 등장하기 때문이다.

14. 복수 표준어로 인정된 단어들의 짝이 아닌 것은?

- ① 굵신거리다 - 굵실거리다
- ② 꺼림직하다 - 꺼림칙하다
- ③ 남사스럽다 - 남우세스럽다
- ④ 두루뭉술하다 - 두리뭉실하다
- ⑤ 야무지다 - 야물딱지다

15.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지 않은 것은?

- ① 일이 잘 될법하다.
- ② 오늘은 비가 올 듯도 하다.
- ③ 이 내용은 기억해둘 만하다.
- ④ 그녀는 새로 산 옷을 마음에 들어했다.
- ⑤ 폭우에 마을의 모든 집이 떠내려가 버렸다.

16. 밑줄 친 단어의 쓰임이 옳지 않은 것은?

- ① 생선을 줄인다.
- ② 고무줄을 늘인다.
- ③ 안건을 회의에 부치다.
- ④ 매달 회비가 잘 걸힌다.
- ⑤ 지금 바쁘니까 이따가 오너라.

17. 다음 시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순이(順伊) 별레 우는 고풍(古風)한 뜰에
달빛이 밀물처럼 밀려 왔구나.

달은 나의 뜰에 고요히 앉아 있다.
달은 과일보다 향그럽다.

동해(東海)바다 물처럼
푸른
가을
밤

포도는 달빛이 스며 고웁다.
포도는 달빛을 머금고 익는다.

순이 포도 넝쿨 밑에 어린 잎새들이
달빛에 젖어 호젓하구나.

- 장만영, 「달·포도(葡萄)·잎사귀」 -

- ① 돈호법의 수사가 확인된다.
- ② 공감각적 심상을 통해 달빛의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 ③ 직유법을 통해 달빛을 형상화하고 있다.
- ④ 시적 화자는 가을밤에 동해 바다를 보며 생각에 잠겨 있다.
- ⑤ 시상 전개 of 주요 소재들이 작품의 제목이 된 작품이다.

18. 다음 설명을 참고하여 ㉠~㉣에 해당하는 사례들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한글 맞춤법」 제30항은 사이시옷과 관련된 조항이다. 순우리말로 된 합성어 또는 순우리말과 한자어가 결합하여 만들어진 합성어에서 앞말이 모음으로 끝날 때에, ㉠뒷말의 첫소리가 된소리로 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 ‘ㄴ, ㄹ’ 앞에서 ‘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 ㉢뒷말의 첫소리 모음 앞에서 ‘ㄴㄴ’ 소리가 덧나는 경우에 사이시옷을 받쳐 적는다. 이때 뒷말의 첫소리가 거센소리이거나 된소리일 경우에는 사이시옷을 표기하지 않는다.

- | | ㉠ | ㉡ | ㉢ |
|---|------|------|-----|
| ① | 꺾병 | 잇몸 | 웃어른 |
| ② | 덧저고리 | 뒗마루 | 깃잎 |
| ③ | 돛자리 | 뒗머리 | 배깃잎 |
| ④ | 부싷돌 | 빃물 | 훗일 |
| ⑤ | 절댓값 | 도리깃열 | 가윗일 |

19. <보기>의 밑줄 친 단어 중 한자어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 보 기 >

가. 그 사람은 생각이 매우 깊다.
 나. 도대체 네가 하고 싶은 말이 뭐야?
 다. 이제는 어차피 늦었으니 너무 서두르지 맙시다.
 르. 왜 그런 일을 했는지 도무지 짐작이 가지 않는다.
 모. 사과를 수확하는 해의 기후 조건이 중요하다.
 바. 친구는 접시에 밥을 담고 카레 소스를 얹었다.

- ① 가, 나, 모
- ② 가, 다, 바
- ③ 나, 다, 모
- ④ 나, 다, 바
- ⑤ 다, 르, 모

20. <보기>에 맞는 단어를 순서대로 바르게 연결한 것은?

< 보 기 >

가. 받은 공문을 다른 부서로 다시 보내어 알림 또는 그 공문
 나. 헌법상의 조약 체결권자가 조약을 최종적으로 확인, 동의하는 절차
 다.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일
 르. 뒷사람이나 관청 등에 일에 대한 의견이나 사정 따위를 말이나 글로 보고하는 것
 모. 납세 의무자의 신고가 없거나 신고액이 너무 적을 때에 정부가 과세 표준과 과세액을 변경하는 일
 바. 주로 공사나 용역 따위의 큰 규모의 거래에서 수요자가 물건이나 건축 공사 따위를 공급자에게 주문함

- 가 나 다 르 모 바
- ① 이첩(移牒) 인준(認准) 비준(批准) 상신(上申) 경정(更正) 발주(發注)
- ② 이첩(移牒) 비준(批准) 인준(認准) 상신(上申) 경정(更正) 발주(發注)
- ③ 이첩(移牒) 비준(批准) 인준(認准) 계고(啓告) 갱정(更正) 수주(受注)
- ④ 통첩(通牒) 인준(認准) 비준(批准) 상신(上申) 경정(更正) 발주(發注)
- ⑤ 통첩(通牒) 인준(認准) 비준(批准) 계고(啓告) 갱정(更正) 수주(受注)

21. 다음 작품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창틀에 동그마니 올라앉은 그는, 등을 한껏 꼬부리고 무릎을 세운 자세 때문에 어린 아이처럼, 혹은 늙은 꼬추처럼 보인다. 어쩌면 표면장력으로 동그랗게 오므라든 한 방울의 수은을 연상시켜 그 자체의 중량으로 도르르 미끄러져 내리거나 앉을까 하는 아찔한 의구심을 갖게도 한다. 그러나 창에는 철창이 둘러 있기 때문에 나는 마치 렌즈의 핀을 맞추는 때처럼 객관적인 거리를 유지하며 냉정한 눈으로 그를 살필 수 있다.

그의 살갓 밑을 흐르는 혈액 속에는 표면장력이 있어 그는 늘 그렇게 자신의 표면적을 최소한으로 줄이려는 염원으로 잔뜩 웅크린 채 조심스럽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다. 미안합니다, 아주 죄송스럽군요, 하는 듯한 웃음을 언제든 필요할 때 즉시 내보낼 수 있도록 입 안쪽 어디쯤에 고여두고 있는 것 같기도 하다.

허공을 정확히 정육각형으로 조각조각 가르고 있는 창살 너머 잔잔히 깔린 비늘구름에 노을빛이 묻어 불그레하게 빛나고 있다. 나는 때때로, 특히 달 밝은 밤 창 바깥쪽에서 잠자리나 초파리의 수많은 겹눈이 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에 잠에서 깨어나 거의 유아적인 공포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는 여전히 웅크린 채 창틀에 앉아 휘익휘익 휘파람을 불고 있다. 바람 때문에 공기의 진동은 내가 있는 곳에 채 닿기도 전에 소리의 형태를 스러뜨리고 사라져버려 나는 그가 어떠한 곡조를 휘파람으로 불고 있는지 알 수 없다.

- 오정희, 「불의 강」에서 -

- ① ‘나’의 ‘냉정한 눈’을 통해 대상의 객관적 이미지를 형상화하고 있다.
- ② ‘나’를 통한 1인칭 서술 방식으로 초점화 대상의 심리를 직접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 ③ 사건을 압축적으로 요약함으로써 전체 서사의 배경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사건의 서술이 없이 인물의 외양과 시공간에 대한 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 ⑤ 작품 속 장면이 ‘그’를 초점화하는 ‘나’의 시선이 움직이는 동선에 따라 바뀌고 있다.

22. 다음 글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왜 일반적으로 말은 쉽게 하는 사람이 많지만, 글은 쉽게 써내는 사람이 적은가?

거기에 말과 글이 같으면서도 다른 점이 존재하는 것이다.

말과 글이 같으면서 다른 점은 여러 각도에서 발견할 수 있다. 우선 말은 청각에 이해시키는 점, 글은 시각에 이해시키는 점이 다르다. 말은 그 자리, 그 시간에서 사라지지만 글은 공간적으로 널리, 시간적으로 얼마든지 오래 남을 수 있는 것도 다르다. 그러나 여기서 더 중요한 지적이 있다.

먼저, 글은 말처럼 저절로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일부러 배워야 글자도 알고, 글 쓰는 법도 알게 된다는 점이다. 말은 외국어가 아닌 이상엔 커가면서 거의 의식적인 노력 없이 배워지고, 의식적으로 연습하지 않아도 날마다 말하는 것이 절로 연습이 된다. 그래서 누구나 자기 생활만큼은 별 걱정 없이 말로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글은 배워야 알고, 연습해야 잘 쓸 수 있다.

또 말은 머리로 꼬리도 없이 불쑥 나오는 대로, 한 마디 혹은 한두 마디로 쓰이는 경우가 거의 전부다. 한두 마디만 불쑥 나오더라도 제3자가 이해할 수 있는 환경과 표정과 함께 지겨여지기 때문이다. 연설이나 무슨 행사에서 쓰는 말 외에는 앞에 할 말, 뒤에 할 말을 꼭 꾸며가지고 할 필요가 없다.

- ① 음성 언어가 청각에 기반하며 순간적으로 사라지는 특성을 지니는 반면 문자 언어는 시각에 기반하며 기록으로 전승된다.
- ② 말의 형식이 자유로운 것은 말하는 상황과 분위기, 표정과 몸짓 등 비언어적 표현의 효과 때문이기도 하다.
- ③ 말은 노력하지 않아도 저절로 배울 수 있지만 글은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더 큰 가치를 지닌다.
- ④ 글은 문자를 습득하고 글의 형식을 익히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하며 연습을 통해 이를 체화해야만 쓸 수 있다.
- ⑤ 외국어를 배우는 상황에서는 말도 글처럼 의식적인 노력과 연습이 필요할 수 있다.

23. <보기>와 관련하여 다음 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가) 사람에게서는 외형의 변화와 행동 발달을 조절하는 호르몬이 있다. 성장기에는 테스토스테론이 얼굴 길이와 눈썹활 돌출 정도를 조절한다. 사춘기에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분비될수록 눈썹활이 두드러지며 얼굴이 길어진다. 따라서 남자가 여자보다 눈썹활이 더 두드러지고 얼굴이 약간 더 긴 경향이 있어서 이런 얼굴을 ‘남성적’이라고 말한다.

(나) 테스토스테론은 사춘기가 시작되게 하고 적혈구 세포를 생성하는 등 우리 몸에서 많은 역할을 담당한다. 하지만 가장 널리 알려진 특성은 공격성과의 관계다. 테스토스테론이 사람의 공격성을 직접적으로 유발하지는 않는다. 일부 동물에게서는 그런 효과가 확인되기도 하지만, 인위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더 높은 공격성을 보이는 것은 아니다. 다만 테스토스테론 수치와 다른 호르몬의 상호작용이 공격적 반응을 유발하며, 경쟁 상황에서는 특히 더 큰 효과가 나타나는 듯 보인다.

(다) 스티브 처칠과 그의 학생 밥 케이리는 20만 년 전에서 9만 년 전 사이인 플라이스토세 중기의 두개골 13점, 3만 8,000년 전에서 1만 년 전 사이인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두개골 41점을 포함하여 총 1,421점 두개골의 눈썹활 돌출 정도와 얼굴 길이를 분석했다. 양 볼 사이의 거리, 코 상단에서 치아 상단까지의 길이를 측정해 얼굴의 너비와 길이를 분석했고 눈에서 눈썹활까지의 높이로 눈 위 뼈가 얼마나 돌출되어 있는지도 측정했다.

(라) 평균적으로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두개골에서 눈썹활 높이가 이전 두개골에 비해 10% 낮아졌다. 또 플라이스토세 후기의 얼굴이 플라이스토세 중기보다 10% 더 짧아지고 5% 더 좁아졌다. 다양한 패턴을 띠면서도 변화는 계속되어 현대 수렵채집인과 농경인에 이르자 플라이스토세 후기인들의 얼굴보다도 한층 더 동안인 얼굴을 발견할 수 있었다.

< 보 기 >

사람 자기가축화 가설은 자연선택이 공격성이 낮고 다정하게 행동하는 개체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여 우리가 유연하게 협력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향상시켰을 것이라고 가정한다. 친화력이 높아질수록 협력적 의사소통 능력이 강화되는 발달 패턴을 보이고 관련 호르몬 수치가 높은 개인들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더욱 성공하게 되었다고 보는 것이다.

- ① 경쟁 상황에서는 테스토스테론을 주입하는 것만으로도 공격성이 높아진다.
- ② 사람 자기가축화 가설을 전제할 때 테스토스테론은 친화력을 저해하는 요소로서 이를 감소시키기 위한 노력의 결과가 현생 인류이다.
- ③ <보기>에서 언급한 ‘관련 호르몬’이란 (나)의 ‘다른 호르몬’과 같은 것으로 인간의 성공 욕구를 자극함으로써 발전을 도모하게 한다.
- ④ 연구자들이 1,421점에 달하는 두개골의 눈썹활 및 얼굴 길이와 폭을 조사한 것은 친화력이 증가하는 인간 진화의 방향을 확인하기 위해서이다.
- ⑤ (라)의 ‘동안인 얼굴’은 눈썹활이 낮고 얼굴이 짧고 좁은 여성적인 얼굴을 말하는 것으로 인류의 사회성 발달에 여성호르몬이 필수적인 역할을 했음을 나타낸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문 24. ~ 문 25.]

사람을 고용해 대리로 줄을 세우거나 압표를 파는 행동이 잘못일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아니다.”라고 말한다. 줄서기의 도덕성에 대해 거의 공감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리로 줄을 세우기 위해 노숙자를 고용하는 경우에, 경제학자는 “도대체 뭐가 불만이죠?”라고 묻는다. 입장권을 자신이 사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팔고 싶은 경우에도 그들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는데 왜 방해하죠?”라고 묻는다.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재화를 사고 파는 행위에 대해 사회 질서나 도덕성 여부와 상관없이 구매하는 사람이 지불하려는 가격과 판매하는 사람이 원하는 가격이 일치하면 거래가 이루어진다. 대리 줄서기에 관해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입장에는 두 가지 주장이 있다. 하나는 개인의 자유 존중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의 극대화에 대한 주장이다. 첫 번째는 자유지상주의의 입장이다. 그들은 타인의 권리를 침범하지 않는 한, 원하는 재화는 무엇이든 자유롭게 사고 팔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유지상주의자는 장기 매매 금지법에 반대하는 것과 같은 이유로 압표 매매 금지법에 반대한다. 이러한 법은 성인이 상호 동의에 따라 내린 선택을 방해함으로써 개인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믿기 때문이다.

시장을 옹호하는 두 번째 주장은 경제학자에게 좀 더 친숙한 것으로 공리주의자의 입장이다. 공리주의자는 시장에서 거래가 구매자와 판매자에게 똑같이 이익을 제공하고, 결과적으로 집단의 행복이나 사회적 효용을 향상시킨다고 말한다. 돈을 지불한 사람과 돈을 받고 대리로 줄을 선 사람 사이에 거래가 성립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양측이 모두 이익을 얻었다는 뜻이다. 10만 원을 내고 대리로 줄서는 사람을 고용한 사람은 줄을 서지 않고 유명한 뮤지컬을 관람함으로써 툭툭없이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사람을 고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몇 시간 동안 줄을 서서 10만 원을 번 사람도 행복을 느낀다. 그렇지 않다면 애당초 그 일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24. 윗글을 읽고 추론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공리주의의 입장에서 압표 거래가 성사된다면 구매자와 판매자는 모두 행복해지고 효용은 증가한다.
- ② 자유지상주의자는 압표 매매가 궁극적으로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키므로 압표 매매 금지법에 대하여 반대한다.
- ③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줄서기의 본질을 침범했다는 이유로 대리 줄서기를 하는 사람을 비난해서는 안 된다.
- ④ 자유 시장 체제에서는 사람들이 상호 유리한 방향으로 거래하는 것을 허용함으로써 재화에 가장 높은 가치를 매기는 사람에게 그 재화를 할당하게 된다.
- ⑤ 자유 시장 체제를 옹호하는 주장에 따르면, 시장에서의 거래는 재화를 가장 많은 대가를 지불하려는 사람에게 돌아가게 만들어 사회적 효용을 증가시킨다.

25. <보기>의 입장에서 윗글의 자유지상주의와 공리주의를 비판한 내용으로 적절한 것은?

< 보 기 >

콘서트나 축구 경기를 가장 간절하게 보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도 입장권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없을 수 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최고 가격을 내고 입장권을 손에 넣은 사람이라도 그 경험의 가치를 전혀 높게 평가하지 않을 수도 있다. 오히려 콘서트나 축구 경기에 대한 열망으로 오랜 시간 줄을 서서 어렵게 입장권을 구한 사람이 그 경험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을 훨씬 높게 평가할 수 있다.

- ① 재화의 가치를 재화에 대한 경제적 지불 능력이나 합의된 거래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불완전하다.
- ② 재화의 가치는 자유 시장 체제의 수요와 공급에 절대적으로 의존하여 판단해야 한다.
- ③ 재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 재화를 공급하는 판매자의 이익은 중요한 기준이 된다.
- ④ 재화의 가치를 판단할 때 구매자와 판매자가 모두 행복해지고 경제적 효용이 증가하는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 ⑤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재화에 대한 개인적 관심과 성향, 거래 경험에 대한 가치와 만족감에 의하여 정해진다.